

# 광산구의회, 폭우피해 예방 지원 나서

### 윤영일 구의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대 주택·상가·소규모 공동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기상이변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폭우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윤영일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산구 신창동 반촌마을과 매결마을 등을 현장 점검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에는 2020년 8월 광산구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 및 상가가 침수

돼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사례 등도 반영됐다.

윤 의원이 내놓은 조례안은 저지대 주택,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지원절차와 지원 대상,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사항을 포함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원기준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피해 우려 건축물 출입구에 소유자 및 관리 주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내에서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공동주택은 개소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윤영일 의원

또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저지대 및 상층 침수지 거주 주민·상인들이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광산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인 신가동 재개발지역을 방문 문제점을 파악하고 송정배수펌프장 등 침수관리시설 등도 집중 점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소촌단지 특혜의혹에도 뗏뗏하다는 광산구

기자 노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광산구는 뗏뗏합니다'라는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실체도 없는 의혹만 제기해 공직자들을 폄하 하고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킨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입장문에 담고 있는 것은 경고성 메시지였다.



최승렬 편집국 부국장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제복부터 그렸다.

입장문 발표 직후 구청장실에서 박 청장을 직접 만나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되돌아온 답변은 "입장문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였다. 그런데 광산구 안팎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다시 묻자 이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용도변경과 관련해 할 말이 많은 듯 보였지만, 이날 대화는 여기까지였다.

그리고 옛말에 '방구 권 놔서 성낸다'는 말이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깃털 정도의 역할이라도 있었다면, 스스로 진실을 밝혔던 것이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박 구청장 본인과 광산구가 이번 특혜의혹의 몸통으로 오르내리는 데 대해 역올한 마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취재를 이어갈수록 입주신청 절차를 거르고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준 것을 시작으로, 실시설계(지구단위변경)등 필수 이행 사항 누락, 심의위원 명단 유출, 지원시설 면적별 비율 초과 허용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광산구 공직 내부에선 이번 박 구청장의 입장문 발표를 놓고 민선 시대 병폐인 '꼬리자르기'식 행태를 우려하며, 결국 애국은 공무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이 밝힌 입장문 내용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략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옛말에 '방구 권 놔서 성낸다'는 말이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깃털 정도의 역할이라도 있었다면, 스스로 진실을 밝혔던 것이다.

/srchoi@kwangju.co.kr.

## 도심 속 공원 작은 전시회 '별밤미술관'

쌍암·풍영천변길공원 등 5곳 8월 27일까지



이재문 작 '넌 어느별에서 왔니' (첨단)



이경성 작 '동선' (운남)

광주 광산구가 '별밤미술관 7, 8월 작가초대전'을 개최한다.

'별밤미술관'은 도심 속 공원 5개소(쌍암공원, 풍영정천변길공원, 운남근린공원, 신창역사근린공원, 선운자구근린공원)에 조성된 야외 전시 공간으로, 2개월마다 지역 작가의 참여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초대전은 ▲(첨단)이재문 "환상의 여름밤" ▲(수완)김재성 "질서에 관한 어법" ▲(운남)이기성 "동선" ▲(신창)노은영 "나 지금, 여기에" ▲(선운)김기현 "별밤 달을 보다" 등 다양한 주제로 회화, 조각, 도예 등 23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은 8월 27일까지 58일간이며,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전시정보는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누리집(gwangsan.go.kr/sochon)에서 확인하거나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688)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새 도시브랜드



광주 광산구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BI·사진)로 '지속가능 광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도시 브랜드인 '지속가능 광산'은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에 출토된 마한의 수레바퀴, 현재 자동차 산업을 상징하는 자동차 바퀴, 그리고 미래차 바퀴를 '무한대' 형태로 연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2000년 전 세계 최고 문명을 일군 마한의 역사를 품고 현재 광주 경제를 이끄는 광산이 미래차 국가산단과 더불어 광주 미래 성장·발전의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도시 브랜드(BI)는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자문단의 자문과 공직자 선호도 조사, 두 차례 시민 선호도 조사, 그리고 광산구의회의와 소통을 통해 확정했다.

광산구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응용 디자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가능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며, 이는 광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새로운 도시브랜드(BI)가 광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행사·축제장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 시민생활환경회의, 워킹맘과 '다회용기 지원센터' 업무협약

광산구가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 행사·축제 현장에 다회용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추진한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사)시민생활환경회의(대표 김형곤), (주)워킹맘(대표 박지선)과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 단체는 이번 달 내로 다회용기 구입 및 세척장 준비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광산구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축제장 등에 일회용 식기 대신 다회용 식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에 나선다.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는 시민생활환경회의가 다회용기 대여 접수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워킹맘이 사용한 다회용기를 세척해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광산구는 다회용기 구입·세척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각종 행사나 축제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자 하는 시민, 단체는 사전 신청 후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시민생활환경회의)를 방문해 식기를 수령하고, 사용 후 지원센터에 반납하면 된다.

광산구는 많은 시민이 다회용기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회용기 지원센터가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광산형 순환경제 실현의 새로운 모델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등가납.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동우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로컬올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